
주요국 예산안 - 미국

2020. 4.

연구책임자

김현아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 전망	1
가. 경제 전망	1
나. 재정 전망	3
2. 예산기조	7
3. 예산안 내용	8
가. 세입	8
나. 세출	9
4. 주요 재정정책	18
가. 국경안보 강화 및 이민법 집행	18
나. 인프라 투자	19
다. 세계 속의 미국 경제 지위 개선	20
라. 미래 산업선도	21
마. 달/화성 탐험 시대 개척	22
바. 주요 재정사업 절감 및 개혁	23

미국 개황

□ FY2021 : 2020년 10월 ~ 2021년 9월

□ 출처 :

-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0.2.10.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0.2.10.
-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21」,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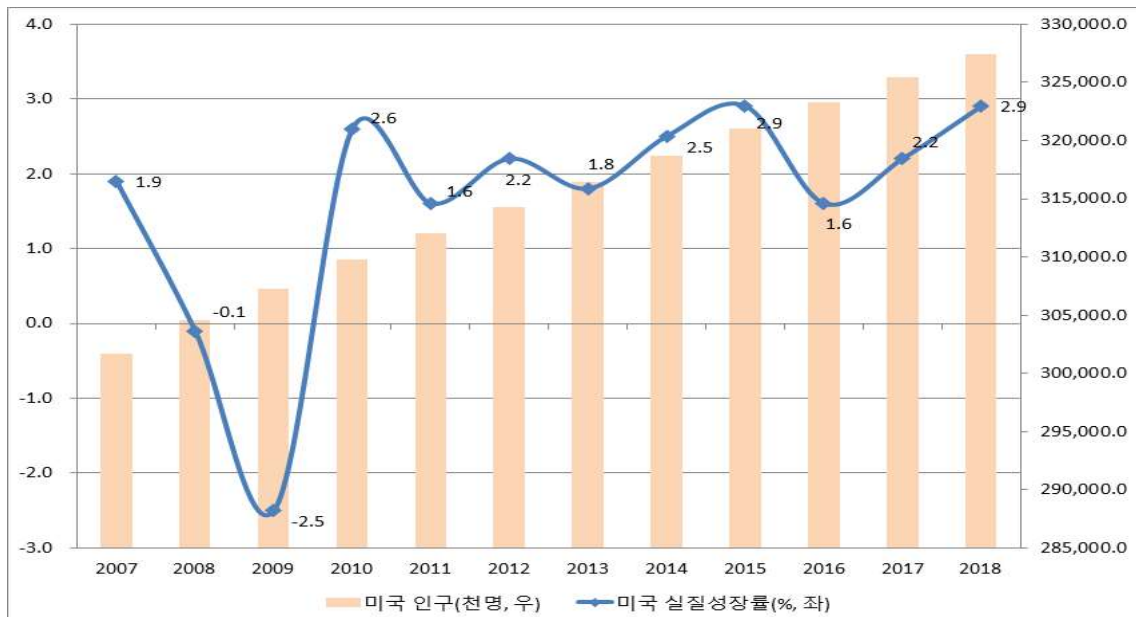
□ 환율 : 1USD = 약 1,165.65원 (201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8년 경상GDP 20조 5,802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9.5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8년 기준 27.5% (우리나라는 78.7%)

□ 인구 : 3억 2,744만명 (2018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최근 재정 및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9.1.6.	연방정부 부분 섯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역대 최장기간 경신	2019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9.1.25.	FY2019 제3차 임시 세출예산법(P.L. 115-245) 통과로 연방정부 최장기간 섯다운 사태 해소	
2019.1.28.	의회예산처(CBO), 2019~2029 예산·경제 기준선 전망 발표	
2019.2.4.	의회조사처(CRS), 연방학자금 채무 현황 발표	
2019.2.12.	의회, 약 14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예산 양당(공화/민주) 잠정 합의	
2019.2.15.	의회, 국토안보분야를 포함한 FY2019의 총 7개 세출분야 통과 의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함께 국가비상사태 섯포	
2019.3.1.	연방채무 한도 유예기간 만료	
2019.3.11.	관리예산처(OMB), FY2020 예산안 발표	
2019.3.14.	의회, 국가비상사태 저지결의안 통과 →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 행사(2019.3.18.) →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하원에서의 재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	
2019.4.5.	의회예산처(CBO), FY2019 상반기 재정 (추정)결산 발표	
2019.4.10.	재무부 재정관리국, FY2018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발표	
2019.5.2.	의회예산처(CBO), 2019~2029 예산 기준선 수정 전망 발표	
2019.5.21.	감사원(GAO), 2019년 연례보고서(분절·중복·유사 프로그램 감축과 재정 절감방안) 발표	
2019.6.6.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세출예산 입법 발효	
2019.6.19.	의회 하원, FY2020 첫 번째 부분예산안(1st minibus) 통과 의결	
2019.6.25.	의회예산처(C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9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9.6.27.	의회, 남부 국경지역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한 비상추경세출예산(P.L. 116-26) 통과	
2019.7.12.	관리예산처(OMB), FY2020 수정예산안 발표	

2019.7.31.	연방준비제도, 연방 기준금리 인하 (2.25~2.5% → 2.0~2.25%)
2019.8.1.	의회, 2019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9) 통과 의결
2019.8.21.	의회예산처(CBO), 2019~2029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 발표
2019.9.4.	국방부, 36억달러 규모의 국방관련 예산 →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환 계획 발표
2019.9.18.	연방준비제도, 연방 기준금리 인하 (2.0~2.25% → 1.75~2.0%)
2019.9.24.	의회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발표
2019.9.26.	의회, FY2020 1차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s) 통과 의결
2019.10.7.	의회예산처(CBO), FY2019 결산 추정치 발표
2019.10.30.	연방준비제도(Fed.), 연방 기준금리 인하 (1.75~2.0% → 1.50~1.75%)
2019.11.4.	감사원(GAO),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현황 발표
2019.11.6.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초당적 의회 예산개혁법(Bipartisan Congressional Budget Reform Act, S.2765) 심의 착수
2019.11.21.	의회, FY2020 2차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s) 통과 의결
2019.11.21.	의회 하원, 'The Sustainable Budget Act' 법안(H.R. 5211) 발의
2019.12.6.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 파월(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 청문회의 재정경제 관련 주요 내용 발표
2019.12.10.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가지 혐의(①권한남용 ②의회방해)를 적용한 탄핵소추안 발표
2019.12.18.	의회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H.Res.755) 통과 의결
2019.12.19.	감사원(GAO), 주/지방정부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9.12.20.	의회, 2개의 부분예산 법안으로 구성된 FY2020 12개 세출분야 예산 통과 의결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1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인 28%대비 0.3% 상승한 3.1%, 이후 향후 3년간 3.0% 유지 전망
- (재정 전망) FY2021 재정적자 규모는 9,660억달러로, 전년(1조 830억달러)대비 10.8% 감소 전망
- (국가채무) FY2021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 (17조 8,810억달러, GDP 대비 80.5%) 대비 5.8% 증가한 18조 9,120억달러

□ 예산기조

- ① 더 나은 내일 구축(Building a Better Tomorrow)
- ② 신형 위협세력 대응
- ③ 낭비·불필요 사업 감축
- ④ 대응(responsive)정부, 민첩한(agile) 정부, 효율적인(efficient) 정부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21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2%(1,570억달러) 증가한 3조 8,630억달러 (GDP 대비 16.5%) 전망
- (지출) FY2021 재정지출은 전년(4조 7,900억달러) 대비 약 0.8% 증가한 4조 8,290억 달러(GDP 대비 20.7%) 계획

□ 주요 재정정책

- 국경안보 강화 및 이민법 집행, 인프라 투자, 세계 속의 미국 경제 지위 개선, 미래 산업선도, 달·화성 탐험 시대 개척 등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¹⁾

□ (경제성장률) 올해('20년) 실질성장률은 2.8%, 내년('21년)에 3.1%로 상승하며, 이후 향후 3년간 3.0%를 유지하다가 2% 후반대로 소폭 감소 전망

* CBO가 2020.1.28.에 발표한 「'20~'20년 예산·경제 전망²⁾」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년 2.2%, '21년은 1.9%로 하락할 전망 → 이후 '23~'24년(평균)은 1.6% 수준

- 정부의 2020년 경제전망은 CBO와 Blue Chip Survey³⁾ 등 다른 주요 전망에 비해 0.7~1.1%p 정도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
- 2021년 명목GDP 규모는 23조 6,450억달러, 2026년에 30조달러 전망

<표 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30
실질 GDP ¹⁾	2.6	1.5	2.2	2.9	정부	2.4	2.8	3.1	3.0	3.0	...	2.8
					CBO	2.6	2.1	1.8	1.7	1.7	...	N/A
					Blue Chip	2.3	1.7	1.8	1.9	2.0	...	2.0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Table 2-3,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 (노동시장) 내년('21년) 실업률은 올해('20년) 전망 대비 0.1%p 증가한 3.6%로 전망되며, 이후 2년간 소폭 증가하다가 '23년을 기점으로 4.0%대를 기록 후 유지 전망

- 2016년 말에 4.7%였던 실업률은 2019년 11월에 3.5%(1969년 이래 최저점)까지 감소하였음 (전후(post-war) 평균 5.8%보다 크게 밀도는 수준)

□ (소비) 소비는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 기간 동안 2.6% 증가하였고, 이는 레

1)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2)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2030, 2020.1.28. <<https://www.cbo.gov/publication/56020>>

3)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한 수치

저용 상품 및 자동차⁴(12%), 교통 서비스(3%), 식·음료(3%) 등 다양한 범위의 재화와
 용역구매의 증가에 기인함

* 주요소비 증가분야: (의료서비스, health care) 2% / (의류 및 신발류, clothing and footwear) 2% / (가구 등, furnishings) 3%

□ (투자) 개인고정투자(주택·비주택)는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동안 0.9%증가

* 2016년: 2.8%, 2017년: 5.1%, 2018년 3.5% 증가

○ 2017~2018년의 빠른 투자 증가는 세금감면법⁵의 영향으로 자본비용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나 무역 이슈 및 세계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음

□ (정부지출) 연방정부 지출은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 기간 동안 3.7% 증가,
 주·지방정부 지출은 1.4% 증가함

□ (무역) 수출은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 기간 동안 0.2% 증가, 수입은 0.9%
 증가함

<표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30
명목 규모	19,485	20,580	21,437	22,494	23,645	24,849	26,113	...	36,598
실질 GDP 성장률 (2020 예산안 전망치)	2.2	2.9	2.9	3.2	3.1	3.0	3.0	...	2.8
실질 GDP 성장률 (2021 예산안 전망치)			2.4	2.8	3.1	3.0	3.0	...	2.8
실업률 ¹⁾	4.4	3.9	3.7	3.5	3.6	3.8	4.0	...	4.0
CPI-U ²⁾	2.1	2.4	1.8	2.2	2.3	2.3	2.3	...	2.3
국채 91일 ³⁾	0.9	1.9	2.1	1.4	1.5	1.5	1.6	...	2.5
국채 10년물 ¹⁾	2.3	2.9	2.2	2.0	2.2	2.5	2.7	...	3.2

주: 지표의 수치는 2019년 11월 중순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주: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9,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4) recreational goods and vehicles

5) Tax Cut and Jobs Act(TCJA)는 2017년 말에 제정이 되었으나 2017년 4분기 항목을 소급하여 적용

나. 재정 전망⁶⁾

- (재정수입) FY2021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2%(1,570억달러) 증가한 3조 8,630억달러 (GDP 대비 16.5%) 전망
- (재정지출) FY2021 재정지출은 전년(4조 7,900억달러) 대비 약 0.8% 증가한 4조 8,290억달러(GDP 대비 20.7%) 계획
 - (재량지출⁷⁾) FY2021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조 4,850억달러 계획⁸⁾
 - 국방분야 예산(지출 기준⁹⁾)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7,537억달러 계획
 - 비국방분야예산(지출 기준)은 전년대비 1% 증가한 7,317억달러 계획¹⁰⁾
 - (의무지출) FY2021 의무지출(순이자지출 3,780억달러 포함)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3조 3,340억달러 전망
 - 순이자지출은 올해(FY2020) 3,760억달러, 내년(FY2021)에 3,780억달러로 0.5% 증가 전망
- (재정수지) FY2021 재정적자 규모는 9,660억달러로, 전년(1조 830억달러)대비 10.8% 감소 전망
 - * GDP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올해(FY2020) 추정치 4.9% 대비 0.8%p 감소한 4.1% 전망
 - FY2020 재정적자는 전년도에 발표한 FY2020 예산안 전망 규모인 4.9%로 이번 예산안(FY2021)과 동일한 전망치를 보이고 있음
 - 재정적자는 FY2021부터 점차 감소하여 향후 10년(~FY2029)안에 GDP 대비 0.7%

6) 2021회계연도 기간은 2020.10~2021.9이며, FY2021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의 수치임

7) 총 재량지출(outlays) 기준이기에, <표 9>의 '기관별 (재량)지출 순 예산권한(Budget Authority)' 수치와는 다름

8) 재량지출은 <Historical Tables (Table 5.6 - Budget Authority for Discretionary Programs: 1976-2025)>의 **순예산권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FY2021 규모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조 3,360억달러의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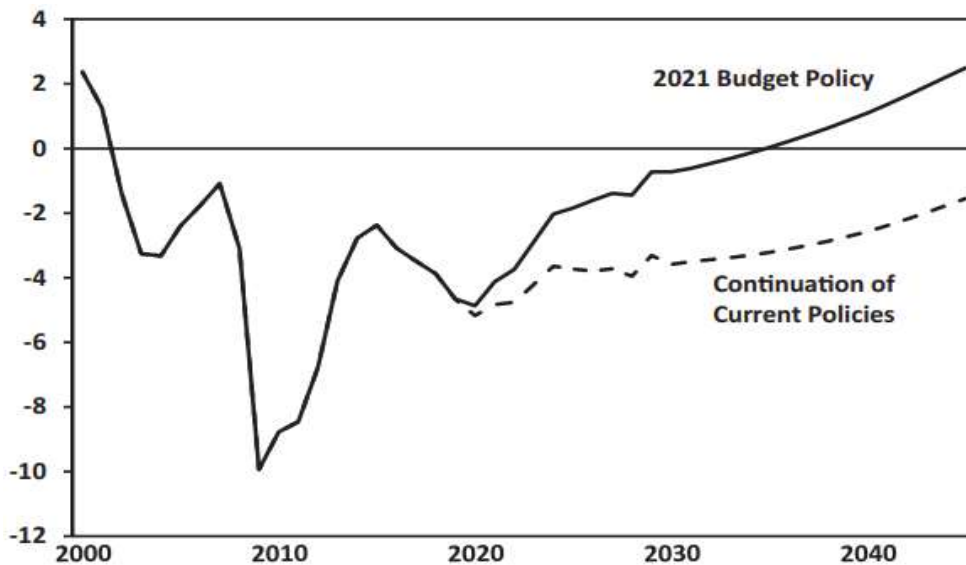
9) Historical Tables (Table 8.7 - Outlays for Discretionary Programs:: 1962-2025) 또는 대통령 예산안 문서 (Summary Table S-4) 수치(Outlays)를 기준으로 작성

10) 국방분야 예산은 <Historical Tables (Table 5.6 - Budget Authority for Discretionary Programs: 1976-2025)>의 **순예산권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FY2021 규모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7,405억달러의 수치를 보이며, 비국방분야예산은 전년대비 11.4% 감소한 5,953억달러를 보이고 있음

로 하락할 전망

-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총 누적 재정적자는 5조 6,130억달러로 전년도에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 수치(7조 2,590억달러)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FY2021 예산정책의 효과로 인해 FY2030 재정적자가 GDP 대비 0.7%까지 감소하고, FY2035에는 균형재정(balanced budget)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아래 그림 참고>

[그림 2] 연도별 GDP대비 재정수지 전망



주: 1) 흑자는 +, 적자는 -
2) 단위: 년도, %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Chart 3-2,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 (국가채무) FY2021 연방정부 채무¹¹⁾¹²⁾(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 (17조 8,810억달러, GDP 대비 80.5%) 대비 5.8% 증가한 18조 9,120억달러(GDP 대비 81.0%) 전망

* FY2021 연방총채무¹³⁾(25조 770억달러; GDP대비 107.4%)중 정부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 소유채무는 6조 1,650억달러 전망

- FY2020 GDP 대비 연방 채무¹⁴⁾는 전년(79.2%) 대비 1.3%p 증가한 80.5% 전망

11) 정부 내부거래 제외

12) 정부 내부 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13) 연방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14) 정부 내부 거래 제외

- FY2021~2022에는 각각 81.0%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향후 10년(~FY2030) 안에 GDP 대비 66.1%까지 하락할 전망

<표 3>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 망							
	2008 ¹⁾	2009 ²⁾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9	2030
예산총량 (십억 달러)												
수입	2,524	2,105	3,464	3,706	3,863	4,086	4,359	4,657	6,059	6,378	50,725
지출	2,983	3,518	4,448	4,790	4,829	5,005	5,105	5,208	6,309	6,639	56,338
재정적자	459	1,414	984	1,083	966	920	746	552	250	261	5,613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5,803	7,544	16,801	17,881	18,912	19,891	20,688	21,284	23,604	23,892	-
경제규모 (GDP)	14,441	14,119	21,216	22,211	23,353	24,543	25,791	27,104	34,480	36,164	-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7.7	14.8	16.3	16.7	16.5	16.6	16.9	17.2	17.6	17.6	17.2
지출	21.0	24.7	21.0	21.6	20.7	20.4	19.8	19.2	18.3	18.4	19.3
재정적자	3.2	9.9	4.6	4.9	4.1	3.7	2.9	2.0	0.7	0.7	2.1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40.8	53.0	79.2	80.5	81.0	81.0	80.2	78.5	68.5	66.1	-

주: 1) 금융위기 발생 당해 연도 수치

2) 금융위기 발생 직후 연도 수치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1)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참고> CBO 2020~2030 예산·경제 기준선 전망

※ 2020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용 발췌

◇ **(경제 전망)** '19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추정되며, '20년은 0.1%p 감소한 2.2% 전망 (2025~203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7% 수준)

- (성장률) 경제성장은 2020년에 최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잠재성장을 상회함에 따라 물가상승과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견고한 경제성장과 노동수요로 인해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머물며, 2020년에 잠재 고용규모¹⁵⁾를 초과하고, 임금(wages)/급여(salaries)는 상승 전망
- (소비지출) 가계자산(household wealth) 증가 및 임금/급여의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택/부동산 투자) 2020년에 전년 대비 5.7%로 크게 증가할 전망(2019년 증가율: 0.9%)
- (기업투자)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률(-1.6%)을 보였던 기업투자는 2020년에 3.6% 증가 전망
- (정부지출) 2019년에 2.6%의 증가율을 보이나, 2020년에는 0.9%로 하락할 전망 (2021년~2024년에는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4>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calendar year 기준)

경제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2024	2025~2030
	추정	전망			평균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2.3	2.2	1.9	1.7	1.6	1.7
개인소비지출물가 ¹⁾	1.8	2.5	2.6	2.6	2.4	2.2
실업률 ²⁾	3.7	3.5	3.5	3.8	4.3	4.5

주: 1) 2019 실업률은 실적 수치(actual value)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1.28

◇ **(재정 전망)** FY2020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3.1%(310억달러) 증가한 1조 150억달러로 GDP대비 4.6% 전망

- (수입) FY2020 연방수입은 전년대비 4.6%(1,580억달러) 증가한 3조 6,320억달러 전망
- (지출) FY2020 연방지출은 전년대비 4.5%(2,000억달러) 증가한 4조 6,470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연방정부 채무¹⁶⁾는 올해('20년) GDP대비 80.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GDP대비 98.3% 전망

<표 5> 미국 재정 기준선 전망 (fiscal year 기준)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29	2030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6.5	16.3	16.4	16.6	16.7	17.0	17.0	17.1	17.6	...	18.0	18.0
지출	20.3	21.0	21.0	20.9	21.4	21.5	21.5	22.1	22.4	...	22.7	23.4
재정적자	3.9	4.6	4.6	4.3	4.7	4.5	4.5	4.9	4.8	...	4.8	5.4
국가 채무 ¹⁾	77.8	79.2	80.8	82.0	83.9	85.6	87.3	89.4	91.2	...	96.2	98.3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0 to 2030, 2020.1.28

15) potential employment = maximum sustainable level of employment

2. 예산기조

-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America’s Future”)이란 기조 하에 총 4조 8천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편성
 - 이번 예산안은 ① 더 나은 내일 구축(Building a Better Tomorrow) ② 신홍 위협 세력 대응 ③ 낭비·불필요 사업 감축 ④ 대응(responsive)정부, 민첩한(agile) 정부, 효율적인(efficient) 정부 등 크게 4개의 목표 설정

◇ 더 나은 내일 구축

-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부합한 정책 준비
- 지속 불가능한 적자 및 채무 감축

◇ 신홍 위협 세력 대응

- 무역정책 개선, 미래 산업선도 등 미국 경제 보호
- 미국 국방 재건
- 자유 신장(Advance Freedom)을 위한 미국 동맹국과의 협력

◇ 낭비·불필요 사업 감축

- 관료 조직 규모 조정(Resizing the bureaucracy)
- 중복 프로그램 폐지
- 연말 지출(end-of-year spending) 개선 등

◇ 대응정부·민첩한 정부·효율적인 정부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절차 간소화
- 부적정 지출 예방
- 대민 업무 개선

16)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3. 예산안 내용¹⁷⁾

가. 세입

- FY2021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4.2%(1,570억달러) 증가한 3조 8,630억달러(GDP 대비 16.5%) 전망
 - 올해(FY2020) 재정수입은 전년(FY2019) 실적 대비 약 7.0%(2,420억달러) 증가한 3조 7,060억달러(GDP 대비 16.7%)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FY2023에 17%에 근접한 후, 향후 10년 뒤인 FY2030에 1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향후 10년간 GDP대비 평균 수입비율은 17.2% 전망)
 - 수입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GDP대비 비중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현재(FY2020) 8.2%→9.5%(FY2030)로 상승 전망

<표 6>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적	추정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1~'3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개인소득세	1,684	1,718	1,812	1,932	2,048	2,185	2,346	...	3,228	3,426	8.9
법인세	205	230	264	284	324	382	426	...	446	453	1.4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¹⁾	1,171	1,243	1,312	1,373	1,449	1,521	1,603	...	2,066	2,168	-
소비세	95	99	95	87	89	90	95	...	102	105	0.3
유산세, 증여세	23	17	20	22	23	24	26	...	35	37	0.1
관세	41	71	92	54	43	44	45	...	52	52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²⁾	71	53	73	71	69	68	68	...	69	74	0.2
기타 수입	41	33	39	40	42	44	47	...	61	62	0.2
총 재정수입	3,330	3,464	3,706	3,863	4,086	4,359	4,657	...	6,059	6,378	-
GDP대비 %	16.5	16.3	16.7	16.5	16.6	16.9	17.2	...	17.6	17.6	17.2

* : 5억달러 이하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4), 2020.2.10.

17) 2021회계연도 기간은 2020.10~2021.9이며, FY2021 전망에서 비교하는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안 부속서류인 historical table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5), (Table 2.1 - Receipts by Source: 1934-2025)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나. 세출¹⁸⁾

- FY2021 재정지출은 전년(4조 7,900억달러) 대비 약 0.8% 증가한 4조 8,290억달러(GDP 대비 20.7%) 계획
 - FY2019 재정지출(실적)은 4조 4,480억달러로 GDP 대비 21.0% 기록
 - 예산 기능별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국방, 메디케어, 보건, 소득보장(income security), 순이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FY2021의 주요 기능별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¹⁹⁾
 - (사회보장²⁰⁾)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 1,15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23.9% 전망
 - FY2019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1조달러를 웃돌았으며, 올해(F2020) 5.4%의 증가율을 보인 후, 향후 몇 년간 5% 후반대의 연평균 증가율 지속 전망
 - (국방) 전년 대비 5.9% 증가한 7,671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5.9% 전망
 -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1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7천억달러를 넘어선 국방예산은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6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2020 회계연도에는 다시 7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FY2021 자원배분에서 사회보장 지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 (메디케어²¹⁾) 전년 대비 4.2% 증가한 7,285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5.1% 전망
 - 2000년대에 들어선 후, 2012년에 한 차례 감소율을 보인 메디케어 지출은 2018

18)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 규모를 의미함

19)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5),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0.2.11

20)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21)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다시 감소 → 이후, 2019년에는 10.6%로 높게 증가하면서
향후 몇 년간 지속 증가하다가 2023~2024년에는 1% 증가율 전망

- (보건, Health) 전년 대비 1.2% 증가한 6,486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비중은 13.4% 전망
 -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보건관련 연구·교육(health research and training),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등 보건관련 프로그램 하위기능 지출 모두 전년대비 증가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1.0% 감소한 약 5,238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0.8% 전망
 - 소득보장 지원 분야의 하위기능 중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지원(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비용,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및 기타 소득보장 지출 증가
 - 퇴직/장애보험(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분야 지출 제외) 및 식품·영양지원(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등의 지출은 감소
- (순이자 지출) 전년 대비 0.5% 증가한 약 3,782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7.8% 전망
 - 2019~2020년에 각각 0.2%, 0.5%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순이자 지출은 2021년에 5.4%, 2022년에는 7.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할 전망

<표 7> FY2021 예산안 기능별 순 지출(Net Outlays)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8	2019	2020 (a)	2021 (b)	금액 (b-a)	증가율
국방	631,130	686,003	724,480	767,104	42,624	5.9
국제관계	48,996	52,739	58,320	60,684	2,364	4.1
과학/우주/기술	31,534	32,410	35,032	37,548	2,516	7.2
에너지	2,169	5,041	4,596	4,910	314	6.8
천연자원, 환경	39,140	37,844	42,817	43,908	1,091	2.6
농업	21,789	38,257	38,332	27,522	-10,810	-28.2
상업/주택융자(housing credit)	-9,470	-25,715	684	691	7	1.0
교통	92,785	97,116	101,560	104,300	2,740	2.7
지역사회/지방발전	42,159	26,876	30,306	33,796	3,490	11.5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95,503	136,752	195,526	111,993	-83,533	42.7
보건(의료)	551,219	584,816	640,878	648,564	7,686	1.2
메디케어	588,706	650,996	699,281	728,497	29,216	4.2
소득보장	495,289	514,787	529,335	523,791	-5,544	-1.1
사회보장	987,791	1,044,409	1,097,184	1,156,204	59,020	5.4
재향군인	178,895	199,843	215,077	235,757	20,680	9.6
법무행정	60,418	65,740	79,570	75,803	-3,767	-4.7
일반정부	23,885	23,436	29,465	28,867	-598	2.0
순이자	324,975	375,158	376,171	378,189	2,018	0.5
기타(상계수입 포함)	-97,869	-98,192	-109,232	-139,127	-29,895	-27.4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4,109,044 (20.2)	4,448,316 (21.0)	4,789,746 (21.6)	4,829,359 (20.7)	39,613	0.8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 주요 항목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재량지출과 법정(의무)지출로 구분,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 지출로 나누어짐

- (재량지출) 국방분야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다만, 2026년부터는 소폭 증가 방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비국방분야는 2022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전망이나, GDP대비 규모(10년 평균)는 올해 수준(13.4%)보다 낮은 수준(12.5%)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출별 비중)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총지출대비 비중은 올해(FY2020) 30:70 수준이며, 향후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80 수준 전망(순이자지출 포함)

<표 8> 항목(Category)별 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28	2029	2030	2021~2030
재량지출 프로그램												
국방	676	713	754	769	771	778	790	...	802	803	803	7,866
비국방	661	725	732	708	678	659	638	...	603	595	587	6,438
소계:	1,338	1,438	1,485	1,477	1,449	1,437	1,428	...	1,406	1,397	1,391	14,304
(GDP 대비 %)	(6.3)	(6.5)	(6.4)	(6.0)	(5.6)	(5.3)	(5.0)	...	(4.3)	(4.1)	(3.8)	(5.0)
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1,038	1,092	1,151	1,216	1,286	1,361	1,440	...	1,706	1,804	1,906	15,002
메디케어	644	694	722	779	790	799	899	...	1,178	1,132	1,269	9,554
메디케이드 ¹⁾	409	447	448	449	450	452	453	...	531	570	607	4,941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44	743	645	686	703	701	733	...	796	762	802	7,315
소계	2,735	2,975	2,966	3,130	3,228	3,313	3,524	...	4,210	4,267	4,583	36,813
(GDP 대비 %)	(12.9)	(13.4)	(12.7)	(12.8)	(12.5)	(12.2)	(12.4)	...	(12.8)	(12.4)	(12.7)	(12.5)
순이자	325	393	479	548	610	664	702	...	788	810	823	6,918
(GDP 대비 %)	(1.8)	(1.7)	(1.6)	(1.6)	(1.7)	(1.7)	(1.8)	...	(1.9)	(1.9)	(1.8)	(1.8)
총 재정지출	4,448	4,790	4,829	5,005	5,105	5,208	5,451	...	6,236	6,309	6,639	56,338
GDP 대비 %	21.0	21.6	20.7	20.4	19.8	19.2	19.1	...	19.0	18.3	18.4	19.3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roposed Budget by Category (Table S-4 & S-5),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 주요 부처(기관)별 2021 회계연도 재량지출 사업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²²⁾

○ 국방부

- 국방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도(FY2020) 확정예산(7,046억달러) 대비 0.1%(8억달러) 증가한 7,054억달러 편성²³⁾²⁴⁾

· 미국 군대 재건, 미래 전력 준비태세 강화, 군 병사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 과제에 대비한 미군²⁵⁾ 요구능력(required capabilities)을 갖추기 위한 군 현대화 및 혁신 등 실행 예정

· 우주군(USSF) 창설 지원을 위한 인력 증강 등 1억달러 배정 및 국내 민간 우주 산업분야를 활용한 우주개발기관²⁶⁾(2019년 설립)의 혁신 조성

· 불량국가(rogue state)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체계 강화 예산으로 203억달러 배정

· 신흥 위협세력에 대한 대응·압도를 위해 필요한 기술우위 회복 및 지속을 위한 투자에 110억달러 배정

· 군 사이버 능력 개발을 위해 약 100억달러 배정 (사이버 예산은 군의 3대 사이버 미션을 촉진하기 위함)

* 3대 사이버 미션: ① 국방부 네트워크·정보·시스템 보호 ② 군 사령부 목표 지원 ③ 국가 방어

○ 보훈부(VA²⁷⁾)

- 보훈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도(FY2020) 확정예산(927억달러) 대비 14.0%(129억달러) 증가한 1,050억달러 편성

· 재향군인 자살 예방 및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 등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22) 부처별 예산은 특정 기금 또는 자금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표 9>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23)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포함, 긴급비상지출(emergency requirements)은 제외

24) 재량지출 국방부 예산 계산: 대통령 예산안 문서 Table S-8 수치를 토대로 작성

<FY2021 국방부 예산> Defense \$636.4 bn + OCO \$69.0 bn

<FY2020 국방부 예산> Defense \$633.3 bn + OCO \$71.3 bn → FY2020 OCO 전체 예산은 \$79.5 bn 이나, 국방부가 아닌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예산이 혼재되어 있기에 본 수치에서는 제외

25) 미국 현역 군인은 현재 2,153,50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26) Space Development Agency

27)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삼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등을 높일 계획

- * 재향군인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는 920만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재향군인 및 유가족 장애수당은 57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
- 재향군인 자살예방 프로그램²⁸⁾에 전년 예산대비 32% 증가한 3억 1,300만 달러 배정(국가/주정부/지방정부 협력을 장려하면서 부처의 자살 예방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계획)
- 마약성 치료제(Opioid) 남용 방지 프로그램²⁹⁾에 전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5억 400만달러를 배정하여 예방 및 치료 지원
- 재향군인 보건 기록 현대화에 전년대비 82% 증가한 26억달러를 배정하여 국방부와 보건부처와의 통합 보건 기록 시스템³⁰⁾을 지원할 계획

○ 보건·복지부³¹⁾

- 보건·복지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확정예산 대비 10% 감소한 9,450억달러 편성
- 약물 남용 및 마약성 치료제 남용에 대응하고자 50억달러를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정부에 지원하는 약물성 치료제 대응 보조금도 포함(16억달러)되어 있음
- * 정부의 약물 남용 및 마약성 치료제 남용 대응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당 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언급(2018년 약물 남용 사망자: 67,367명)
- HIV/AIDS 감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³²⁾ 지원을 위해 7억 1,600만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이 중 신규 감염자 감소 예산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3억 7,100만달러 배정 (매년 약 4만명의 신규 HIV 감염자 발생)
- * 2020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HIV/AIDS로 인해 30년 이상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1다년간 진행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5년 안에 신규 감염자 수를 75% 이상 줄이고, 10년 안에는 9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 혁신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공중보건을 개선하고자 국립보건원(NIH³³⁾)에 전년

28) Veteran Suicide Prevention

29) Opioid Abuse Prevention Programs

30) un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EHR)

3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32) 이니셔티브는 다년간 진행되며, 2021회계연도에 2년째를 맞게 됨

대비 40억달러 증가한 380억달러 배정

- 동반자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³⁴⁾(unaccompanied alien children)들에게 인도 주의적 차원의 양질의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억달러 배정

○ 교육부

- 교육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확정예산(722억달러) 대비 7.8%(56억달러) 감소한 666억달러 편성
 - 교육자유 장학금(education freedom scholarship)을 매년 최대 50억달러까지 지원하여 직업기술교육(CTE³⁵⁾), 특수교육, 사립학교 학비 등의 교육활동에 대해 주정부가 책정한 방식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애인교육법(IDEA) Part B의 주정부 보조금 13억달러를 배정하여 700백만 명의 장애인에게 특수교육분야 등 관련분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흑인대학(HBCUs³⁶⁾) 발전을 위해 7억 5천만달러 배정 (최근 통과된 FUTURE Act³⁷⁾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추가적으로 흑인대학에 매년 8,500만달러의 의무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국토안보부

- 국토안보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확정예산(481억달러) 대비 3.4%(16억달러) 증가한 497억달러³⁸⁾ 편성
 - 국토안보부는 자국민 및 국가 영토를 테러로부터 예방함과 동시에 국경안보 관리 및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올해 2021 회계연도 예산에서 남서부

33)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34)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거나, 미국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뜻함

35) Career and Technology Education

36) 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1964년 이전 미국 내 흑인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을 통칭)

37) FUTURE Act: 교육자원의 해제를 통한 대학인재 육성법으로서 흑인 대학들 뿐 아니라 기타 소수민족 지원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재 승인하였음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

<https://law.nanet.go.kr/lawservice/lawpreced/lawPrecedView.do?searchCon=&searchKey=&pageUnit=10&searchFromDate=&searchToDate=&searchCountry=&searchNewAsc=&pageNum=1&pos=1&cn=PLAW2019000245&sort=odrdate&dir=reversealphabetical>

38) U.S. Secret Service(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비밀경호국)의 예산(24억달러)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국경지역의 건설장벽 사업 예산(20억달러)을 주요 우선순위에 배치함

- 테러·폭력(violence)에 대응한 전국적/지역사회 기반의 이니셔티브를 위해 8천만달러 배정

※ 국토안보부의 기타 주요 사업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 가. 국경안보 강화 및 이민법 집행] 참고

○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 (DS & USAID³⁹⁾)

-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확정예산(525억달러) 대비 22%(117억달러) 감소한 408억달러 편성
 -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의 선전/선동으로부터 자유, 개방,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달러 배정
 - *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곳이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주요한 곳으로 언급되고 있음
 - 유럽 및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안보 공유와 함께 미국 동맹국들의 영토 보전 지원 및 러시아 군사 장비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특히, 에너지 및 무역 분야에 있어 러시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거시경제 환경의 약점에 대응한 지원책을 다룰 것으로 보임
 - 해외 주재 대사관 보안을 위해 54억달러 배정 → 해외 주재 시설 및 외교관 등 직원 보호에 대한 예산과 함께 신축 공사 등도 포함
 - 개발도상국⁴⁰⁾의 민간 부문 성장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및 기타 전략적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국제 신용(international lending) 지원에 대응한 투명·고품질의 대체 재원을 제공하고자 국제개발금융공사(DFC⁴¹⁾)에 8천만달러 배정

39) DS: Department of State / USAI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40) less developed countries

41)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enter

<표 9> 기관별 (재량)지출 순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2020 입법예산	2021 예산안	증감규모	증가율
			(2019 추정치 대비 2020 예산안)	
내각 부처 (Cabinet Departments)				
농무부 (Agriculture)	23.8	21.8	-1.9	-8.2
상무부 (Commerce)	12.9	8.1	-4.8	-37.3
국방부 ¹⁾ (Defense)	633.3	636.4	3.1	0.5
교육부 (Education)	72.2	66.6	-5.6	-7.8
에너지부 (Energy)	38.5	35.4	-3.1	-8.1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6.6	19.8	3.2	19.0
보건복지부 (Health & Human Services)	105.8	96.4	-9.5	-9.0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48.1	49.7	1.6	3.4
주택·도시개발부 ¹⁾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9.9	39.1	-10.8	-21.6
내무부 (Interior)	14.7	12.7	-2.0	-13.4
법무부 (Justice, DOJ)	32.4	31.7	-0.7	-2.3
노동부 (Labor)	12.4	11.0	-1.3	-10.7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55.7	44.1	-11.7	-20.9
교통부 (Transportation)	24.8	21.6	-3.2	-20.9
재무부 (Treasury)	15.5	15.7	0.2	1.5
보훈부 (Veterans Affairs)	92.7	105.0	12.3	13.3
주요 정부기관 (Major Agencies)				
공병단(Corps of Engineers)	7.7	6.0	-1.7	-22.0
환경보호청	9.1	6.7	-2.4	-26.5
항공우주국(NASA)	22.6	25.2	2.7	11.9
국립과학재단	8.3	7.7	-0.5	-6.5
중소기업청	0.8	0.7	-0.1	-11.1
사회보장국	9.2	9.0	-0.2	-1.8
기타 기관들	22.0	20.1	-1.9	-8.5
의무지출 변화 (Changes in Mandatory Programs)	-15.9	-9.1	6.8	-43.0
한도 조정(Cap Adjustment Funding)	113.5	74.3	-39.2	-34.5
합계	1,401.7	1,335.8	-65.9	-4.7
(Defense Total)	(746.0)	(740.5)	(-5.5)	(-0.7)
(Non-Defense total)	(655.7)	(595.3)	(-60.4)	(-9.2)

주: 1) FY2021: 해외비상작전(OCO) 지출 미포함 / FY2020: 긴급지출(emergency) 미포함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8)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2020.2.10.

4. 주요 재정정책

- 행정부 우선순위 정책 -

- ◇ 국경안보 강화 및 이민법 집행
- ◇ 인프라 투자
- ◇ 세계 속의 미국 경제 지위 개선
- ◇ 미래 산업선도
- ◇ 달/화성 탐험 시대 개척
-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5년 안에 4.4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주요 재정사업 절감 및 개혁안」을 FY2021 예산안과 함께 발표

가. 국경안보 강화 및 이민법 집행⁴²⁾

- 불법 이민자 및 불법 마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배정 → 미 행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불법 이민, 불법 마약 등의 불법 물질 등의 국경 반입·진입을 막기 위한 국경안보 및 이민법 집행 등의 업무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
 -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CBP⁴³⁾)에 156억달러, 이민세관집행국(ICE⁴⁴⁾)에 99억달러 배정
 - 관세국경보호청의 불법 월경(border crossings) 예방·감시·금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경안보 기술·인프라·장비 등에 최우선 선위를 두고 있으며, 23억달러 배정
 - 관세국경보호청과 이민세관집행국(ICE⁴⁵⁾)에 배치될 법 집행관 및 지원 인력 등의 신규 채용(5,800명)을 위해 7억 2,600만달러 배정

42) 2021 Budget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2/FY21-Fact-Sheet-Immigration-Border-Security.pdf>

43)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4)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45)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입항지(ports of entry) 사이에 사람, 불법 약품 및 기타 밀수품 등의 반입·진입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을 국경수비대 신규 채용(750명)을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⁴⁶)에 1억 6,100만달러 배정
- (법무부) 이민행정법원(EOIR⁴⁷)에 적체되어 있는 재판 건수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판사(100명) 채용 및 정보기술 현대화 등을 위해 법무부에 8억 8,300만달러 배정
- (보건복지부) 난민재정착사무국(ORR⁴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고, 미국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아이(UAC⁴⁹)’ 프로그램을 통해 감금되어 있는 아이들이 구금이 해제될 때까지 음식·쉼터·서비스 등의 보호를 담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대 45억달러 배정
- 한편, 재정적자 감축의 일환으로 이민 신청비용 등에 10% 부가세를 붙일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동안 40억달러 수입 창출 기대
- 또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위반하여 불법 외국인 고용을 한 고용주에 대한 민·형사상의 업무집행 위반 벌금을 35%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함

나. 인프라 투자⁵⁰)

- 1조달러 규모의 연방직접 투자를 통해 시급한 과제인 인프라의 재건 및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진행 예정
- ①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약 10년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8,100억달러 계획)
 - 고속도로(6,020억달러), 교통(transit)기반시설(1,550억달러), 교통 및 자동차 안전⁵¹), 철도(170억달러), 기타 등
- ② 수도 및 광대역 통신이 포함된 다양한 분야 투자(1,900억달러 규모 계획)

4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7) EOIR: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48) ORR: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49) UAC: Unaccompanied Alien Children

50) 2021 Budget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2/FY21-Fact-Sheet-Infrastructure.pdf>

51) traffic and motor carrier safety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에 600억달러를 배정하여 다양한 이유로 공사 지체기간이 긴 주요 인프라의 메가 프로젝트 지원
- 새로운 화물 수송 안전 및 효율 프로그램에 500억달러를 배정하여 수로 운송 시스템, 철도, 항만 및 고속도로 등에 대한 경제적·안정성 이득 등이 있는 프로젝트 지원
- 새로운 다리 개축(rebuilding) 프로그램에 총 350억달러를 배정하여 취약한 다리 복원 공사에 투입 계획
 - * 미국은 현재 약 47,000개의 다리가 취약한(poor condition) 상태이며, 이 중 약 80%가 농업 지역(rural areas)에 집중되어 있음
- 농업지역 재생 프로그램에 250억달러를 배정하여 광대역 망 제공, 운송, 치수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

다. 세계 속의 미국 경제 지위 개선⁵²⁾

• 무역 일반 정책

-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미국의 기술/혁신을 보호하며, 시장진입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약탈행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조약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자유 공정 무역 추진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6천만달러 배정
 - 미국은 새로운 무역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게 될 것으로 언급
 - *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일본 등과 호혜(reciprocal)무역 조약을 체결했으며, 영국, 중국, 유럽 국가들과도 협상 진행 중
- 강력한 무역 집행을 위해 미 상무부 소속 국제무역청(ITA⁵³⁾)에 4억 7,400만달러, 산업보안국(BIS⁵⁴⁾)에 1억 3,800만달러 배정하여 관세 제외 절차 작업 등 경제안보 및 미국인 노동자, 농민, 제조업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함

52) 2021 Budget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2/FY21-Fact-Sheet-Trade.pdf>

5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54)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국산품 수출 촉진

□ 대통령 행정명령(EO⁵⁵⁾) 13881⁵⁶⁾에 근거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특혜 조치 계획

* (행정명령 13881) 미국 행정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미국산 제품과 자재를 구매하도록 규정한 행정명령

-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연방정부의 일반 특혜제도(Federal Government's general preference)를 강화하여 미국산 제품의 내용물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
- 미국산 강철제품(iron and steel)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외국산 포함 물질이 5%를 초과할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국내 에너지

□ 미국은 에너지 생산국의 선두주자 유지를 위해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등 에너지 산업의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은 2018년에 석유 최대 생산 국가가 되었으며, 2019년 말에 석유(petroleum) 순 수출 기록을 세웠으며, 2020년에는 70년만에 처음으로 석유 순 수출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나갈 것으로 보임

라. 미래 산업선도⁵⁷⁾⁵⁸⁾

□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QIS⁵⁹⁾), 5G 첨단 통신, 생물공학 및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연구기술개발에 전략적 투자 계획

55) Executive Order

56) 국회 법률도서관,

<https://law.nanet.go.kr/lawservice/lawpreced/lawPrecedView.do?searchCon=&searchKey=&pageUnit=10&searchFromDate=&searchToDate=&searchCountry=&searchNewAsc=&pageNum=8&pos=79&cn=PLAW2019000164&sort=odrdate&dir=reversealphabetical>

57) 2021 Budget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2/FY21-Fact-Sheet-IOTF.pdf>

58) 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59) Quantum Information Sciences

- 국립과학재단⁶⁰)에 전년대비 70% 증가한 8억 3,000만달러를 배정하여 인공지능 및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 지원
- 에너지부의 과학국⁶¹)에 인공지능 연구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달러 배정 및 양자정보과학 연구를 위해 2억 3,700만달러 배정
-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농업 시스템의 첨단기술 응용 향상을 위해 농업부의 농·식품 연구 이니셔티브 보조금 프로그램에 1억달러 배정
- 인공지능 및 관련 방법 등을 이용한 만성질병 연구를 위해 국립보건원⁶²)에 5,000만달러 배정

마. 달/화성 탐험 시대 개척

- 미 정부는 2024년까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의 달 착륙 실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달 표면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le presence)을 개척해 나갈 계획 하에 이번 미국 항공우주국(NASA⁶³)의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 (우주인 달 착륙) 우주인의 달 착륙 시스템 개발을 위해 33억달러 배정
 - (운송 시스템) 우주 발사체 시스템, 차세대 유인우주선인 오리온 선원 캡슐 (Orion Crew Capsule), 지면 접근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40억달러 배정
 - (표면 기술) 달 착륙 후 장시간 동안의 달 탐험을 위한 우주복에 1억 7,500만달러를 배정하였으며, 달 지면에서의 초기 작업 및 탐사선(rovers) 관련 예산으로 2억 1,200만달러 배정
 - (기술 개발) 화성에서의 우주인 및 로봇 탐사 혁신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해 4억 3,000만달러 배정(달 자원 활용 기술 및 거주/탐험을 위해 필요한 동력(전력) 생성 등의 기술 개발 사용 예산 포함)

6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1) Office of Science (Department of Energy)

62)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63)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 (로봇 탐사) 화성에서 채취한 흙과 암석 샘플의 지구로의 귀환 미션 등 미래 우주인 탐험 시대 개척을 위한 로봇 탐사 개발 예산으로 5억 2,900만달러 배정

바. 주요 재정사업 절감(savings) 및 개혁(reforms)

□ 트럼프 행정부는 2021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 총 채무 또한 23조달러(GDP대비 81.0%)를 웃도는 규모의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 부속서류(제목: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21)를 통해 재량지출 절감 및 개혁방안을 발표

- 재량지출 사업의 폐지(eliminations) 및 규모 삭감(reductions), 의무지출의 절감 방안 등을 통해 연방지출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향후 15년안에 4.4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 FY2021 재량지출 프로그램 총 480억달러 절감 전망

- 사업폐지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총 280억달러, 사업규모 감축을 통해 200억달러 절감 계획

<표 10> 주요 재량지출 예산권한 폐지(안) 규모

(단위: 백만달러)

	2020 의회 승인 <2020 Enacted>	2021 예산요청 <2021 Request>	폐지 및 감축 규모 <2021 change from 2020>
농무부	404	3	-401
상무부	749	36	-713
교육부	1,578	-1,578
에너지부	461	-480	-941
보건·복지부	5,552	250	-5,302
국토안보부	189	-189
주택/도시 개발부	5,005	-5,005
내무부	177	1	176
법무부	244	244
노동부	564	564
국무부 및 국제개발	5,914	-5,914
재무부	30	-30

미국항공우주국 (NASA)	873	12	-861
기타 정부기관	3,037	295	-2,742
합계	28,078	117	27,961 (총 폐지규모)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21」,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에서 부처별 최종 규모를 발췌하여 작성